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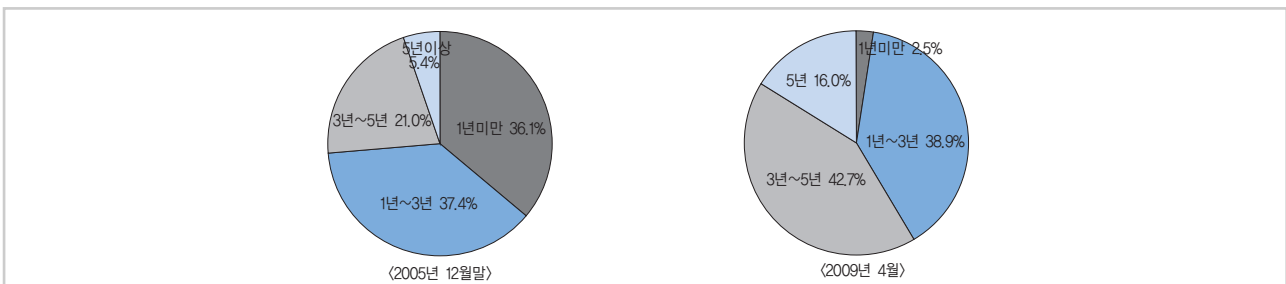
# 주식형 펀드의 경과기간과 수익률 분석

李 兪 錫 (研究委員, 3705-6274)

그 동안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펀드광고 규제 및 세제혜택 등 정책적 노력과 투자자들의 인식제고로 인해 장기펀드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음. 경과기간별 수익률 분석결과 펀드의 상대수익률은 6개월~9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익률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장기수익률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노력이 요구됨.

- 그동안 금융당국은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적립식 펀드투자의 지속적인 증대 등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.
  - 단기 운용성과를 활용한 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들의 투자자 모집 억제를 위해 펀드광고 시 운용실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운용기간을 점차 늘려왔음.
  - 또한 2008년 10월 19일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장기주식형펀드(적립식)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해주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“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”을 발표하였음.
- 펀드에 대한 장기투자 문화 정착 및 인식이 확산되면서 펀드의 경과기간도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  - 2005년만 하더라도 전체 펀드에서 경과기간이 3년 이상 된 장기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.4%에 불과하였음.

〈그림 1〉 경과기간별 주식형펀드의 비중 추이



자료 : 금융투자협회



• 그러나 2009년 4월 현재에는 설정 이후 경과기간이 3년 이상 된 장기펀드가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8.7%에 달함.

■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펀드가 단기펀드에 비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2009년 4월 현재 대표적인 주식형 펀드들을 대상으로 기간별 수익률 분석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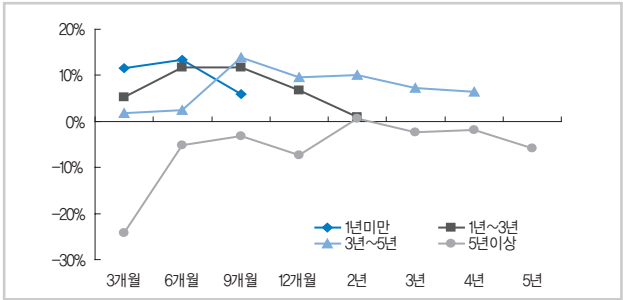
- 데이터는 2009년 4월 현재 수탁고 기준으로 전체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0개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10대 펀드(규모기준, 총 100개의 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음).
- 펀드의 경과기간을 1년 미만, 1년~3년, 3년~5년, 5년이상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설정일로부터 3개월, 6개월, 9개월, 1년, 2년, 3년, 4년, 5년 수익률 변화를 관찰

<표> 주식형펀드 경과기간별 상대수익률<sup>1)</sup> 비교

경과기간	1년미만	1년~3년	3년~5년	5년이상
3개월	11.6%	5.2%	1.8%	-24.2%
6개월	13.4%	11.7%	2.5%	-5.1%
9개월	5.9%	11.7%	13.8%	-3.2%
12개월		6.8%	9.5%	-7.4%
2년		0.9%	10.0%	0.7%
3년			7.2%	-2.3%
4년			6.4%	-1.9%
5년				-5.8%

주 : 1) 상대수익률 = 펀드수익률 -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 
자료 : 금융투자협회

<그림 2> 주식형펀드 경과기간별 상대수익률 변동 추이



■ 첫째, 5년 이상의 장기펀드를 제외하고는 펀드의 상대수익률(벤치마크 대비 수익률)은 대체로 6개월이나 9개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1년 미만의 단기펀드와 1년~3년 중기펀드는 6개월, 3년~5년 중기펀드는 9개월 정도의 시점에서 상대수익률이 각각의 경과기간별 펀드내에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3년~5년 중기펀드의 9개월간 수익률이 13.8%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

■ 둘째, 6개월 미만의 단기 수익률은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펀드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9개월~3년간 수익률의 경우 경과기간이 3년~5년 사이의 중기펀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음.

- 1년 미만의 단기펀드가 6개월 미만의 단기 수익률에서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
- 반면 9개월 이상의 수익률에서는 3년~5년 사이인 중기펀드의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투자기간을 3년 이상 장기화하는 것이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데 유리

■ 단기펀드의 경우 단기 고수익률의 시현가능성은 펀드설정 초기에 투자과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투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이 지나면 수익률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운용사들은 안정적으로 장기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판단됨. **KIF**